

### 광주도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 제조·서비스업 일자리 줄었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서 광주지역 제조·서비스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의 올해 광주지역 고용률 변화 조사와 최저임금 실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체 28개, 서비스업체 47개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을 해고했거나 해고할 예정이다.

제조업 분야에서 18개 업체가 1~5명씩, 8개 업체가 10~30명씩, 2개 업체가 50명 이상씩 인원을 줄였거나 감원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비스업 분야 인원 감축 규모는 29개

업체 1명씩, 11개 업체 2명씩, 6개 업체 3명씩, 1개 업체 6명 등이다.

사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자 근로시간 단축, 장기상여금 기본급화, 가족 또는 초단시간근로자 고용, 복지축소 등을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조업 근로자 5%, 서비스업 근로자 15%가 최저임금을 못 받는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는 '일하는 업종이 대체로 최저임금 이하를 주

고 있어서'(29.4%), '최저임금을 줄 만큼 힘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25.5%) 등을 꼽았다.

'사업이 잘 안되기 때문에'(21.6%), '나를 대체할 사람이 많아서'(13.7%) 최저임금을 못 받는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네 차례에 걸쳐 광주지역 214개 서비스업체 근로자와 사업주, 232개 제조업 근로자와 사업주, 202개 아파트단지 경비 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 김철우 보성군수 당선인

## '희망보성출범위원회 지원단' 출범

군정목표·중장기 로드맵 수립

김철우 보성군수 당선인은 군정 공백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군수직 인수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김 당선인은 지난 18일 '민선 7기 희망보성출범위원회 지원단' 출범식을 갖고 군수직 인수에 본격 착수했다.

지원단은 군정에 밝은 지역인사 중심의 자문위원과 집행부로부터 추천을 받은 전문분야 공무원 등 24명으로 꾸러졌다.

지원단은 오는 당선인 공약을 기본으로 민선 7기 군정목표 등을 확정하고 ▲기획예산 ▲복지 ▲문화관광 ▲보건환경 ▲농림축수산 ▲투자유치 ▲지역개발 등 새로운 보성의 비전을 담은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전임 군수의 과오를 과해치는 감사형식을 완전 탈피하여 선배 군수들이 이뤄놓은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을 세우고, 군수 취임과 함께 추경예산에 반영할 현안사업을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10년, 20년 후의 보성발전을 주



김철우 보성군수 당선인

도할 대형사업 발굴에도 힘써 보성군 재정명 천년을 초석으로 새로운 천년의 밑그림을 그리며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보성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 당선자는 "이번 지원단 활동은 선거과정에서 군민과 약속했던 공약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새로운 보성의 희망을 내실 있게 준비하는 과정"이라며,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군민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억울하지 않는 그래서 모든 군민이 고르게 행복한 보성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남 보성=문병환 기자 m8527188@

## 구례 락페스티벌 얼리버드 티켓 '매진' 임박

인터파크·네이버 연달아 마감행진 이승환·자우림 등 라인업 인기몰이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열리는 '2018 구례 자연드림 락페스티벌'이 얼리버드 티켓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티켓을 오픈한 지난 8일 예매처 인터파크는 많은 팬들이 몰려 오픈한지 30분이 채 되지 않아 티켓이 마감됐다. 이어 예스24, 네이버 티켓이 연달아 매진됐다. 19일 현재 구례자연드림파크 홈페이지에서만 구매가 가능하지만 이 또한 곧 매진을 앞두고 있다.

이번 구례 자연드림 락페스티벌은 역대급 라인업으로 인기몰이 중이다. 이승환, 자우림, 로맨틱펀치, 안녕바다, 정흠밴드, 라이브유니, 오리엔탈쇼커스, 406호 프로젝트가 출연해 올해 전국 락페스티벌 중 꼭 봐야 할 축제로 주목받고 있다.

SNS상 반응도 뜨겁다. 구례 자연드림 락페스티벌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2017년 구례 자연드림 락페스티벌.

은 "매년 라인업이 업(UP)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최고의 출연진이다", "많은 부스가 열려 아이들 데리고 가기에 좋다", "지리산 밑의 페스티벌이라니, 완전 매력적이다"라며 기대감을 한껏 나타냈다.

실제 매년 페스티벌에는 락 스피릿을 즐기는 젊은이는 물론, 연인, 친구, 아이와 함께 동반한 가족까지 다양한 형태의 관객이 참여했다. 작은 시골마을에서 시작한 구례 자연드림 락페스티벌은 지난

해 1만 여명의 관객이 찾아와 지역을 대표하는 페스티벌로 우뚝 섰다.

행사관계자는 "다양한 세대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며, "많은 관객이 무대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관람존을 확대했고, 다양한 친환경 먹거리와 체험프로그램으로 페스티벌 열기를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8 구례 자연드림 락페스티벌'은 오는 8월 25일 개최한다.

/전남 구례=오인석 기자 gunguck@

## "여학생 교실에 '탈의실'이 생겼어요"

정덕고교 '모노레일 커튼' 설치

장덕고등학교(교장 이성철) 1~3학년 모든 여학생들에게 '탈의실'이 생겼다.

장덕고 학생들은 그동안 별도의 탈의할 공간이 여의치 않아 화장실, 빈 교실, 특별실 등을 불편하게 탈의실로 이용해왔다. 이에 장덕고 학생회 임원들과 교직원, 학부모들은 4월 한 달간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각 반에 '탈의용 모노레일 커튼'을 설치함으로써 좁은 공간을 활용하고 학생들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등 편의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학교 구성원들의 요청에 따라 장덕고는 5월9일부터 교실 공간을 그대로 활용해 탈의실을 대체할 수 있는 '탈의용 모노레일 커튼' 설치에 들어갔다. 설치 대상은 여학생반 16개 교실이며 면적은 8.3㎡로 했다.

학교 차원에서 큰 공사까진 아니었으나 학생들의 호응은 폭발적이었다.



장덕고 탈의실 모노레일.

학생자치회 이은채 회장은 19일 '체육시간 등에 탈의하기 위해 이곳저곳 빈 곳을 찾아다니거나 화장실에서 불편하게 옷을 갈아입지 않아도 돼서 너무 편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앞으로도 학생들을 대표해 학생 복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초·중·고 검정고시 수험생 격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지난 18일 오전 2018년 제2회 초·중·고졸학력 검정고시 원서접수처를 방문해 김진정 사무관 등 시험 관계자와 원서접수 중인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오는 22일까지 전국 동시에 원서접수를 받는 2018년 제2회 검정고시는 오는 8월8일 시험이 치러지고 8월27일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자를 발표한다. /광주=봉채영 기자

## 해남군 산단 출퇴근 청년노동자 '교통비' 지급

전남 해남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육천, 화원 등 해남지역 산업단지 출퇴근하는 청년 노동자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남군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력해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지난 15일부터 받고 있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전자 바우처 형태로 교통비를 오는 2021년까지 지원한다.

대상자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15~34세 국내 청년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해당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들이 청년 노동자로부터 일괄 신청서를 받아 해남군청 지역개발과 투자유치팀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신

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개인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카드 발급 절차와 함께 통보되며, 발급받은 카드는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해남군은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들의 청년중 고용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단 청년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입주기업체에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전남 해남=김남중 기자 5555knj@

## 광주 우치근린공원에 '아이스월드' 들어선다

광주 우치근린공원 야외수영장에 얼음 테마파크인 '아이스월드'가 조성된다.

광주시는 19일 노후화된 우치공원 야외수영장을 폐쇄하고 그 자리에 사계절 겨울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실내얼음 테마파크 '아이스월드'를 조성하는 계획이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12월까지 우치공원 야외수영장 1만3000㎡ 부지에 5940㎡ 규모의 아이스돔을 조성하고 얼음조각 조형물과 스케이트장, 푸드코트 등을 만드는 구상이다.

운영업체인 광주패밀리랜드는 지난 4월 82억5000만원 규모의 민간투자방식으로 아이스월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오는 7월 공원 조성계획 변경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와 8월 공유재산 용도폐지 공유재산심의회 등을 거쳐 오는 9월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오는 12



서울, 충청 호남 등 폭염특보가 내려진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아이스테마파크 '프리즈 아일랜드' '에서 어린이들이 얼음 미끄럼틀을 타기 전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뉴스시스

월 아이스월드가 문을 연다.

광주시 관계자는 "얼음 테마파크 '아이스월드'가 조성되면 겨울문화 체험형 관광명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봉채영 기자